



☎100-72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9-10 전화 (02) 3788-5426 / FAX 3788-5446 문의 심사역 김진영

하나SKG : 제2003-115호

2003. 6. 16

수 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담당 : 박근용)

제 목 : 김승유 하나은행장과 손길승 회장 명의의 5월 31일자 양해각서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손길승 회장과 협상을 한 이유

손길승 회장이 SK글로벌의 대표이사이므로 동인과 협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벌지배구조와 관련하여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회수율 극대화 와 장기적인 SK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한 순수 상업적 관점에서 SK측과 협상을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벌구조를 용인한다는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SK(주)는 SK글로벌의 대주주로서 SK글로벌에 대해 1조 4천 억원에 달하는 매출채권을 가진 채권자이고 또 SK글로벌의 주유소 영업망을 이용하고 있어 SK글로벌을 희생시킬 독자적인 필요가 있어서 SK글로벌에 대해 출자전환 등을 약속한 것으로, SK글로벌의 부실을 SK계열사에게 전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최태원 회장 주식 처리문제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주)하나은행에 독점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며 6개 시중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던 자신의 기존 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위 주식은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며, 다만 SK글로벌의 회생과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회수 극대화라는 원칙 하에 그 처리 시기 및 방법 등이 결정될 것입니다.

4. 이면합의 존재 여부

이면합의는 전혀 없습니다.

SK글로벌(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김 승 유

